

지역 소식통

김제 그린리더협, 녹색생활 실천 탄소중립 교육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그린리더협의회(회장 김선복)가 최근, 백산면 지오스테이션 아파트 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센터, 여성자원활동센터 봉사자들과 연계해 지구를 지키는 녹색생활실천 탄소중립 환경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주제로 가정 내 에너지 절약 방법,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 교육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다. 그린리더협의회는 기후환경네트워크 소속 협의회로 지난 2004년에 설립되어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탄소중립 생활양식 정착에 목표를 둔 단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8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청렴 정책 기관장 주관 협의체인 '청렴 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 청렴정책추진단은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3년 신설됐으며 정성주 김제시장 이하 부시장, 국단소장, 부서장 등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계획 및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취약분야로 파악된 '갑질 행위'에 대해 국단소별로 갑질 근절을 위한 역점 과제의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보완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회의에서 보고된 갑질 근절 과제의 추진 과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향후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대면 집합 교육도 실시하여 갑질 관련 내·외부 청렴 체감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탄소중립 실현 글로벌 기업 지원”

정성주 김제시장, 블루오션 목재산업 혁신기업 방문

정성주 김제시장이 28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양산업으로 여겨지던 목재산업을 블루오션전략으로 혁신을 이룬 전일목재산업을 찾았다.

이날 정 시장은 전일목재산업 김병진 대표로부터 회사의 현황과 비전을 듣고 현장에서 목재패렛트 조립 시공에 직접 참여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공유, '성장도 시 기반 조성'을 위한 산업 육성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전일목재산업에서 생산된 수출용 목재는 자동차와 설비를 도입, 더욱 저렴한

한 가격에 고품질의 파렛트를 수출기업에 공급해 도내·외 우수 기업들의 수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전일목재산업은 원목 수입에서 제재, 가공, 건조, 방부 등 목재에 관한 일관 시스템과 30여종의 특허 기술로 고품질 목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북대 광장 '문화루', 한옥호텔 '왕의지밀'을 시공하는 등 한옥 건축과 목조 건축 자재와 시공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와 더불어 전통 문화 계승에도 앞장 서고 있다.

전일목재산업 김 대표는 지난 1978년

설립된 선대가업 전일제재소를 1997년 승계한 뒤 목재, 건축 및 조경 자재 등 고품질의 목재 가공품을 공급하는 업계 10위권 내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또 김 대표는 9년째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로 김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정 시장은 “목재를 자연이 아닌 탄소흡수원의 대표 자원으로 바라보고,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하는 친환경 기업이 글로벌 기업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사랑장학재단은 28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장학생 및 학부모 9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24년 김제사랑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김제사랑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이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은 28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장학생 및 학부모 9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24년 김제사랑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장학생 선발과정은 철저한 심사를 거쳐 지난 14일, 열린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신규 장학생 190명과 4년 계속장학생 83명을 포함한 총 273명의 학생들이 선발됐으며, 이들에게는 총 3억6천6백

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개별 지급금액으로는 초·중·고등 학생의 경우 연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대학생은 장학금 종류에 따라 연 100만원 ~ 최대 연 600만원이 지급된다.

정성주 이사장은 수여식에서 “여러분은 김제의 미래를 책임질,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별들”이라며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므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열정으로 이 시대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 “보육환경 개선에 힘쓸 것”

어린이집 원장 소통 간담회

애로사항 청취·보육 정책 논의

유희태 완주군수가 어린이집 원장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보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유 군수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총 4회에 걸쳐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민간, 법인·단체, 가정어린이집 5개 분과 어린이집 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초저출산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주군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과 보육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군수와 관내 어린이집 원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간담회는 보육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



유희태 완주군수가 어린이집 원장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보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최근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으로 폐지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린이집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하반기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6월 3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024년 하반기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 취약계층 임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충식품 패키지를 지원하고, 맞춤형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김제에 거주하면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인 가정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임신·출산·수유부 또는 6개월 미만 영유아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분유, 쌀, 감자, 달걀 등으로 구성된 보충식품 패키지를 오는 7월부터 최대 1년간 매월 2회 제공한다.

또한, 소규모 단체교육과 일대일 맞춤형 가정방문 교육 등의 영양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대상자와 함께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건소 관계자는 “영양플러스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임신부와 영유아의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영양상담실(☎063-540-1356)로 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운주면, 음식 나눔 봉사 '공유부뚜막' 개소

완주군 운주면에 취약계층 음식 나눔 봉사를 위한 '공유부뚜막'이 개소됐다.

28일 군에 따르면, 이날 운주면 생활문화공동체센터 1층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서남웅 군의회 의장, 김규성 군의원 및 사회단체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운주면 공유부뚜막은 음식 나눔 봉사나 마을·단체의 행사 시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조리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됐다.

옛 운주경로당을 리모델링해 약 98㎡ 규모에 조리대, 화구 등 다양한 조

리구들을 구비했다.

강래연 새마을부녀회장은 “운주면 공유부뚜막 개소를 위해 도움을 주신 완주군과 운주면에 감사드리다”며 “관내 저소득 계층을 위한 나눔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운주면 공유부뚜막이 주민들이 화합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봉사에 나서주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복지시각지대를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행복지수 1위 완주군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